

# 강진 가우도출렁다리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로 재탄생

### 다산(도암면)·청자(대구면) 다리로 명칭 변경 내달 움직이는 진짜 출렁다리(길이 150m) 개통

강진군은 가우도와 대구면·도암면을 연결하는 '가우도출렁다리'의 명칭을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로 새롭게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준공된 가우도출렁다리는 강진군의 핵심 관광자원인 가우도를 대구면 저두리(438m)와 도암면 망호리(716m)를 연결한 해상보도교다. 가우도는 해안선을 따라 약 3km의 산책로와 쥘트랙 등의 즐길거리가 많아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강진군 대표 명소로 자리잡고 있

다. 하지만 가우도 출렁다리는 이름과 다르게 실제로는 출렁이지 않아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3차례 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가우도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칭을 변경했다. 도암면 망호와 연결되는 다리는 다산초당이 도암면에 위치한 것을 착안

해 '다산다리'로 명칭을 바꾸고, 대구면 저두와 연결된 다리는 '청자다리'로 바뀐다. 이 두 다리를 통칭해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로 정했다. 또한 군은 가우도 내 새로운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가우도 내에 실제로 움직이는 출렁다리(길이 150m, 폭 1.8m)를 지난해 말 가설하고, 데크시설 등 마무리 공사를 통해 오는 6월 개통한다.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섬 입구와 청자타워 정상을 잇는 모노레일(길이 264m, 30인승 2량)을 7월 임시 개통할 예정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가우도출렁다리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가우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선사하고, 움직이는 출렁다리와

모노레일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해 가우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군, 지역소멸위기 민관 공동대응 나선다 군·군의회·민간 협의체 구성, 해남형 의제발굴 및 전략 추진

해남군이 지역소멸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종합대응전략 로드맵 구축에 나섰다. 2021년 2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지자체의 46%인 106개 지자체로 이중 도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는 8개 군이 해당된다.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해남군은 고위험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2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지역소멸위기대응 공동대응협의

체 발대식에서는 군과 군의회,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소멸위기 진단·평가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교육과 토론회를 가졌다. 협의체는 향후 주1회 정기적인 활동과 전문가 자문, 추진부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행 가능한 해남형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의제별 전략마련과 정책실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형 의제는 농업과 교육, 마을기업과 공동체, 기후변화대응과 먹거리 전략 등 분야별 정책을 발굴해 일자

리, 결혼과 출산, 보육 및 교육 등 긍정적 기반에 걸쳐 협조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불안정한 인구구조 형성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스스로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올해 산림 체험 프로그램 본격 운영

장흥군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2021년도 산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 사업은 총 사업비 218백만 원(국비 50%, 군비 50%)으로 5월부터 12월 10일 까지 산림 치유, 숲 해설 교육, 유아숲 교육 3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산림복지 전문 업체 위탁을 통해 각 분야 전문 인력(숲 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산림 치유 지도사)을 투입하여 유아에게는 숲을 통해 감성과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는 유아숲 교육을,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진로 탐색 등 편백숲 우드랜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숲 해설 교육을 진행

한다. 또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고, 숲의 계절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림 체험 프로그램 문의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숲 치유센터(☎ 061-864-3265) 또는 장흥군 산림휴양과 우드랜드관리팀(☎ 061-860-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도영 기자

## 진도군,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진도군이 최근 안전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 합동으로 진도군, 진도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라는 주제로 ▲제한속도 30km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보행 안전 등 어깨띠 착용과 현수막, 피켓을 활용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홍보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부모, 학원 차량 운전자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과태료가

### 제한속도 30km 준수·불법 주·정차 금지·보행안전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 홍보 "주민들 각별한 주의 요구"

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일반도에서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상향되었다"며 "운전자들이 개정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배너 게시,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